

재난관리의 성과에 대한 이해와 대안 탐색 연구

A Study on Understanding the Performance of Disaster Management and Exploring Alternatives

엄영호*·정슬기**

Eom, Young-Ho·Jeong, Seul-Gi

요약

본 논문은 재난관리의 성과에 대한 근원적 의문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재난관리의 성과는 재난에 대한 정부의 관리적 측면, 즉 행정관리 역량이나 산출지표 등으로 평가되어 왔다. 재난은 일상의 삶에 대한 도전이자 생존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정부 역시 재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그렇다면 재난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정부에 물을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하여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반드시 정부가 책임이라고 답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즉,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개인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관리의 성과가 정부 조직의 책임역량이 증진되는 것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도 증진 역시 그 성과로 이해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실증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재난관리의 주요한 독립변수로 활용되던 재난경험, 재난위험, 조직특성 등을 주요한 독립변수로 사용하고자 하며, 종속변수는 재난조직의 책임역량과 재난현장에서의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즉, 기존의 재난관리 성과와 대안적 성과로서 시민참여도 증진을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재난성과는 조직의 내부적 책임역량의 증진과 함께 외부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 참여는 재난관리의 성과로서 정부의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다. 시민들의 참여는 지역에 대한 재난의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그 참여도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재난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환경에 대한 위험도 증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Keywords : 재난관리 성과, 조직특성, 외부적 성과, 시민참여도

1. 서론

본 논문은 재난관리의 성과에 대한 근원적 의문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재난관리의 성과는 재난에 대한 정부의 관리적 측면, 즉 행정관리 역량이나 산출지표 등으로 평가되어 왔다. 재난은 일상의 삶에 대한 도전이자 생존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강인호, 2008; Pelling, 2012). 정부 역시 재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그렇다면 재난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정부에 물을 수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하여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반드시 정부가 책임이라고 답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즉,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개인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김영주·문명재, 2020; 엄영호·황희영,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관리의 성과가 정부 조직의 책임역량이 증진되는 것과 함께 시민들의 참여도 증진 역시 그 성과로 이해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실증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본론

재난관리의 성과는 일반적으로 정부조직 및 예산 등의 특성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시민참여 등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 성과는 봉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에서는 참여 자체가 프로그램의 과정이자 결과로서 그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강황선·최은영, 2010). 정부는 대응성 차원에서 국민적 요구와 조직의 반응이 일치하는 것을 성과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국민적 참여 역시 정부의 성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윤주명, 2001). 즉, 재난관리는 정부의 조직특성과 함께 개인적 참여까지 재난관리의 평가와 성과에 대한 논의로 확장하는 것이

* 정회원·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교수 yhe@deu.ac.kr

** 학생회원·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석사과정 sk7835247@naver.com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김영주·문명재(2020)는 재난관리에서 시민의 참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며, 정책과정의 측면과 재난과정에 대한 참여로 구분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대응성 차원에서 국민적 요구와 정부조직의 반응이 일치되는 것이 정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윤주명, 2001).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재난관리의 주요한 독립변수로 활용되던 재난경험, 재난위험, 조직특성 등을 주요한 독립변수로 사용하고자 하며, 종속변수는 재난조직의 책임역량과 재난현장에서의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도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즉, 기존의 재난관리 성과와 대안적 성과로서 시민참여도 증진을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3. 결론

재난성과는 조직의 내부적 책임역량의 증진과 함께 외부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참여는 재난관리의 성과로서 정부의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다. 시민들의 참여는 지역에 대한 재난의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그 참여도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재난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환경에 대한 위험도 증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22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연구를 가능케 한 동의대학교 및 행정안전부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강인호 (2008), 미국 지방정부 재난관리체계와 정책시사점,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3), pp.1~17.
- 강황선·최은영 (2010). 공공부문 자원봉사활동의 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1), pp.173~198.
- 김영주·문명재 (2014), 광역자치단체 풍수해보험 가입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풍수피해와 정보제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3), pp.361~382.
- 엄영호·황희영 (2021) 재난 책임의 양면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부의 책임인가, 개인의 책임인가?, 정책개발연구, 21(2), pp.207~228.
- 윤주명 (2001). 시민참여와 행정의 대응성: 인터넷 시민참여에 대한 도시정부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2), pp.143~163.
- Pelling, M. (2012), *The vulnerability of cities :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resilience*. Routledge.